

기름값 폭등·전기요금 인상...24년만에 6%대 물가

IMF 외환위기 이후 23년7개월 만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 3000원 웃돌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값 폭등, 유가 충격, 세계 곡물가격 상승 등이 지속되자 이른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체감 물가가 내려갈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마저 공식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6%대 물가 상승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 까지 0%대 저물가 흐름을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분위기가 반전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 3%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3%대를 유지했다. 3월(4.1%)과 4월(4.8%)은 4%대로 올라서더니 지난달에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 5.4%까지 치솟았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긴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하

는 셈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자국 식량 보호를 위한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국내 물가도 요동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30% 인하로 1당 573원까지 내려간 휘발유 유류세는 추가로 57원 더 내려가게 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1당 38원, 12원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급등한 국제 유가 탓에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 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당 2132.38원으로 나타났다. 최고가격은 1당 3096원이다. 경유 가격은 전국 평균 1당 2151.02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18.64원 비쌌다. 경우 최고가격은 3223원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 압력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이날 오후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전기·수도·가스요금은 기준연료비 조정 등으로 1년 전보다 9.6% 급등한 바 있다. 여기에 3분기 전기요금이 오르면 하반기 공공요금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금이 풀린데다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늘어난 소비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

면류 등 하반기 식품가격 줄줄이 인상

마요네스 무더기 오른다...사조해표 카놀라유 20%↑

올 하반기 식품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원부자재가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식품 업체들이 무더기 가격 인상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사조는 편의점가 기준 해표 카놀라유 가격을 2400원에서 2900원으로 20.8%, 압착올리브유 가격을 4500원에서 5300원으로 17.7%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오뚜기는 국수 소면 900g을 4300원에서 4800원(11.6%)으로, 국수중면 500g을 2000원에서 2250원(12.5%)으로 인상된다. 골드마요네스 300g도 3800원에서 4200원(10.5%)으로 오른다.

이밖에 CJ제일제당의 대표 간식류인 CJ맥스봉오리지널(50g)도 1900원에서 2000원으로 5.2% 올

린다. CJ제일제당은 이미 지난 1월 1700원에서 1900원으로 11.8% 올렸는데 또 다시 추가 인상한 것이다. 로아카 초콜릿도 38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상반기에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던 식품 업체는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을 고민해 왔다. 올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국제식량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공급 차질과 수출 제한 등 공급 상황이 악화된 데다 생산비인 비료가격 상승이 상당한 국제 식량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가공 식품, 외식 물가 오름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천정부지 기름값' 정유사 담합 점검

산업부·공정위 중심 합동점검반 구성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유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체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

부담 등 유류세에 3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자 유류세를 일반 세율로 조정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1당 57원(247→304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더 싸진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1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 유류세는 1당 369원이며, LPG부탄은 130원 인하된다.

고유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항공업계

코로나 감소세로 실적회복 기대했으나 '속앓이'

국제선 하늘길이 열리면서 이륙 준비를 하던 항공업계가 고유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라는 암초를 만났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고유가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해외여행 증가세가 주춤할 우려가 있다. 항공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27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177.08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비 128.9% 오른 수준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0.8%가 올랐다.

7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번달 19단계보다 3단계 오른 22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2016년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거리별로 4만2900~33만9300원이 부과

된다. 지난해달(3만7700~29만3800원)보다 많게는 4만5500원이 올랐다. 항공사들의 고정비용 중 유류비가 20~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리인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0.5% 포인트 이상의 인상을 단행한다는 의미의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를 구매할 때 금융권의 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자에 따른 부담은 크다. 대한항공의 경우 평균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연간 약 45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328억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설상가상 환율도 치솟고 있어서 부담이다. /뉴스

한전KDN '중소기업 ESG지원' 2차 협약

우수기관 확인서 발급·대출지원·우대금리혜택 제공

한전KDN은 27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올해 '제2차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적 책무·거버넌스'경영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 수출 기업화 촉진을 위해 이뤄졌다.

한전KDN은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중소기업 ESG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ESG 교육, 역량진단, 현장진단 컨설팅, 평가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유사한 ESG지표 통합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ESG지표 가이드라인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ESG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우수협력사 지원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 체결로 한전KDN은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참여 협력사 모집·선정'과 '정보공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반성장위는 '협력사 ESG 지표 개발', '협력사 ESG 교육·진단 프로그램 마련과 시행',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교부' 등을 수행한다.

협약 운영 후 ESG지원 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력사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며, 확인서를 IBK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지원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기호 기자

광양시 지속가능한환경

광양제철 환경개선 현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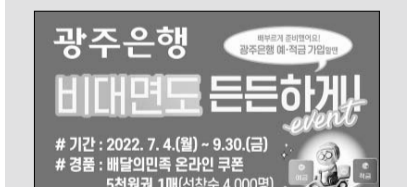
광양시와 '광양시 지속 가능한 환경협의회(이하 지가협)'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개선 진행사항 확인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지역 4개 환경단체와 3개 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소협력사협회 등의 산업계, 전문위원인 순천대, 제일대 교수가 참여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2019년 이슈가 된 제철소 고로 휴풍시 브리더 개방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약 124억 원을 투자해 모든 고로에 클린안전밸브를 적용한 현장과, 제강공정 슬래그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120억 원을 투자한 밀폐형 슬래그 냉각장 조성현장이었다. 또한, 원료야드 남측부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신설 중인 660m 방진망 설치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실사 과정에서 지난 22일 지가협에서는 고로 브리더 개선사항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물레이션 제작과 불투명도 측정 결과 공개 등을 제안했고, 분야별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방지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광주은행, 비대면 채널로 예·적금 가입 경품 이벤트



광주은행은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대면 채널로 예·적금에 가입하는 고객들을 위해 '비대면도 든든하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1년 내 비대면 채널로 예·적금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6개월 이상 정액적립식 적금이나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선착순 4000명에게 배달의 민족 온라인쿠폰 5000원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광주은행은 비대면 전용 고객을 전담하는 디지털금융센터를 통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소비자에게 대면채널과 동일하게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해 해당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맞춤형 금융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공개된 한일 월드컵 20주년 기념메달. FFA 월드컵 카타르 2022 공식 기념주화 및 FIFA 월드컵 한국·일본 2002 20주년 기념메달 출시 행사가 열린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풍산빌딩에서 모델이 FFA 월드컵 한국·일본 2002 20주년 기념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

콘진원, 임직원 업무공간 개방...기관장 성과급 반납 동참

청사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도 지역주민들에 개방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맞춰 나주 본원과 서울의 임원 업무공간을 콘텐츠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한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 반납에 동참, 올해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다.

콘진원은 CKL기업지원센터 내 임원 전용 업무공간을 콘텐츠기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청사 CKL기업지원센터는 콘텐츠 스타트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투·융자 연계,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곳이다.

기존에도 콘텐츠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 콘진원은 이에 더해 17층 임원 업무공간을 콘텐츠기업과 창작자들을 위한 회의·네트워킹 공간으로 개방한다.

나주 청사에 있는 임원 집무실도 축소, 직원들이 고객들과 활발히 업무 소통할 수 있는 회의실로 변경한다. 이 공간은 임직원이 산업계와 국민의 실질적 수요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용 업무시설로 활용된다.

나주 청사 2층에 위치한 콘텐츠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콘텐츠도서관은 콘텐츠 관련 서적, 만화, 간행물, 게임, 영화, 음악 10만여 점을 열람·대여할 수 있는 곳이다. /주기호 기자

aT, 수급불안 대응 배추·무 8천톤 수매비축...물가관리 총력

봄배추 산지 수매현장 찾아 현장점검 체계 가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급불안에 따른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에 나서고 있다.

aT는 여름 장마철 기상악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물가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봄배추 6000t, 봄무 2000t을 긴급 수매비축하기로 결정하고 현장 수매에 본격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배추·무 수급이사 주재로 수매현장 현장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임직원들이 고령지배추 정식

이후 생육작황 상황을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주산지인 강원도 일반대기 지역을 직접 현장 점검했다.

수매비축 봄배추는 품질관리 전문가들이 포전에서 현물을 샘플링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지정한 민간 연구소를 통해 진류 농약과 중금속을 검사한 후 안전성이 확인된 물량에 한해 수매하고 있다.

최종 도착지에선 공인 검정사의 품위검사를 거쳐 합격품에 한해 농산

물 보관 전문 저온저장창고에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비축한 배추는 기상기후, 천재지변, 수급불균형 등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와 협의해 도매시장을 통해 시장 판매하거나 임시 업체 등 가공업체에 공급한다.

배추·무 aT 수급이사는 "본격적인 봄배추, 준고랭지 배추 출하시기에 여름 장마가 시작돼 직접 수매현장을 점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급자와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협력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주기호 기자